

각 총림 을유년 결제법어(요약)

자기마저 잊는 정진삼매로 공안 타파



법전 스님 (조계종 종정·해인총림 방장)

을유년 하안거 결제일인 5월 22일, 전국 100여개 선원에서는 일제히 결제 법회를 열고 3개월간의 하안거에 들어갔다. 안거란 동절기 3개월 하절기 3개월씩 일제 외부와의 출입을 끊고 참선수행에 몰두하는 것으로, 부처님 당시부터 전해 내려오는 한국불교의 가

장 큰 특징 중 하나다. 하안거 결제는 하루 전날 저녁 결제대중이 모인 가운데 각자의 소임을 정하는 용상방(龍象榜)을 작성하고 당일 오전 10시 30분 경 방정스님 등 큰스님을 모시고 결제법어를 청한 후 본격 시작된다.

운문 선사(雲門)가 결제대중에게 말했습니다. "소리를 듣고서 도를 깨닫고 빛을 보고서 마음을 밝힌다. 어떤 것이 소리를 듣고서 도를 깨닫는 것이며 색(色)을 보고서 마음을 깨닫는 것인가?" 이에 대중들이 묵묵히 말이 없으니 선사께서 대신 대답하셨습니다. "관음보살이 돈을 가지고 와서 호떡을 샀는데 손을 내리고서 보니 호떡이 아니라 만두더라."

흔히 '소리를 듣고 도를 깨달았다'고 함은 향엄이 대나무를 기왓장 조각으로 치고서, 그 소리에 마음이 밝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색을 보고 마음을 밝힌다'고 한 것은 영운 스님이 복사꽃을 보고 도를 깨달았다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즉 지금 일상생활에서 소리를 들을 때가 증득할 때요, 색을 볼 때가 증득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운문 선사는 문성오도(聞聲悟道)와 견색명심(見色明心)을 묻고, 잠시 후 스스로 '손을 들어서 호떡을 샀는데, 손을 내리고 보니 호떡이 아니라 만두더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운문 선사께서 십자 네거리와 만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재를 바르고 흙을 문지를 줄 아는 것이 귀신같이 나타나고 귀신같이 없어질 줄을 아는 것입니다. 하안거 결제를 하는 눈 밝은 남자들은 이러한 도리를 놓쳐서는 절대로 아니 될 것입니다.

이는 동쪽에서 선정에 들었다가 서쪽에서 일어서고, 남자의 몸으로 선정에 들었다가 여자의 몸으로 깨어난 것입니다. 들뜬 경지는 산천 때문에 막히는 일이 없고 달빛은 곧장 연못의 물과 통하기 마련입니다. 이번 안거철 석 달 동안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셈치고 자기마저 잊어버리는 정진삼매를 통하여 '운문성색(雲門聲色)'의 공안을 타파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승이 결제대중을 위하여 한마디 하겠습니다. 소리를 듣고 도를 깨닫는다고 하나 도에 어찌 소리가 있겠으며, 색을 보고 마음을 밝힌다고 하나 마음에 어찌 색이 있겠습니까?

영광독요형탈근진(靈光獨耀迥脫根塵)이로다. 홀약근진개변법계(忽若根塵皆徧法界)하니 우자마생(又作麼生)고 장위시만두각시호병(將謂是饅頭却是餛飩)이로다. 신령스런 광명이 홀로 빛나서 육근과 육진을 아득히 벗어나는구나. 홀연히 육근과 육진이 법계에 두루 하니 또 어찌 하겠는가? 만두라 여겼더니 도리어 호떡이구나.

근원에 들어가 뜻 얻는곳 어디인가

원담 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법(法)이 세간에 있으면서 세간의 깨달음을 여의지 않음이니 세간을 여의고 보리(菩提)를 구하려 하지 말라 구하고자 할 때에는 십이시중(十二時中)과 사위의

(四威儀)인을 향하여 일어나는 파도 속에서 깨달음을 관찰함이나 옛보고 오고 옛보아 같 것이니 이러하면 홀연히 그 곳에서 근원을 식득(識得)하여 감이 나랴(중략)

(양구(良久)하신후) 해가 서산에 지면 달이 동쪽에서 뜨나라 알겠는가!

명년경우신조재(明年更有新條在) 뇌란춘풍졸미후(惱亂春風卒未休)

명년에 또 다시 새가지가 뻗어 봄바람에 흔들리어 끊어 없으니

주장삼타(拄杖三打)

고인(古人)이 이르기를 "짧음도 없고 길지도 않고 본래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다. 곳을 따라 청색과 황색이 나타나는 것이 법(法)이라 했고, 화엄경에서 이르기를 "온갖 법이 나지 않고 온갖 법이 멸하지도 않는다" 하였으니 눈 닿는 곳마다 모두 여여하다. 법(法)이 불생불멸함에 허공과 같이 본래공(空)하고 오음(五陰)이 없으나 일체경계가 자기의 본법심, 오직 망령된 생각을 의지해서 차별이 있음을 알겠는가?

야우초정수성진(夜雨初晴垂星辰) 암중한등독불면(庵中寒燈獨不眠) 취겁외가무공적(吹劫外歌無孔笛) 편월수풍진장간(片月隨風潛窓間)

비 개인 밤별은 휘장처럼 드리우고 암자의 차가운 등불아래 홀로 잠 못 이루어 구멍 없는 파리로 검외가를 부는데 조각달은 바람 따라 창틀 몰래 스며드네

생명뿌리 끊어지니 환눈이...

수산 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할애사친출가래(割愛辭親出家來)

공부법절치무의(工夫法掇直無疑)

명근단허공락(命根頓斷虛空落)

유월염천백설비(六月炎天白雪飛)

애정 끊고 부모 떠나 특별히 여기와서 부지런히 공부하여 화두를 타파하여서 생명 뿌리 끊어지고 허공마저 무너지니 유월염천에 환눈이 날리는도다.

법어 전문은 www.buddhanews.com

의심 사라지니 편안하고 한가롭네

지허 스님 (태고총림 선암사 칠전선원장)



방하만사서(放下萬事瑞) 수도조주관(須度趙州關) 삼도백불회(參到百不會) 편사로단단(便是露團團)

온갖 일 다 놓아버리고 반드시 조주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니 참구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경지에 이르면 여기에서 확실하게 드러나느니라.

직접여사거(直截如斯去) 수유파의단(須與破疑團) 남승가중사(衲僧家中事) 여시내안한(如是乃安閑)

곧 바로 이와 같이 가다보면 잠깐 사이에 의심명여리가 부서지니 중이 사는 집안일은 이 같아야 편안하고 한가로우니라.

이는 우리 종단의 종조님께서 어떻게 안거를 해야 참된 안거인가를 밝히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견성 못한 이가 있거든 스스로 돌아보고 을유년 여름은 내 일생에 없는 셈치고 조심행자를 벗어나지 못한 이 병남(病納)과 함께 우리 종조님 말씀대로 때와 장소 구별 말고 각기 처한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구애받지 말고 한번 철저히 참구해 봅시다.

편안한 것은 한가로워야 합니다. 한가로운 것은 아무 일이 없어야 합니다. 스님에게 편안하냐고 묻는 것은 안거를 잘 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후략)

Advertisement for 'Doyemaru' (도예마루) featuring traditional Korean wooden furniture. It includes a large table, a low table, and a stool. Text promotes the quality of the wood and the craftsmanship. A table lists prices for different sizes of tables and stools. Contact information for Doyemaru is provided at the bottom.